

거나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단체들에 의한 미디어 모니터 활동의 강화이다. 그리고 이는 북경대회를 위한 한국 여성NGO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현재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틀의 결여, 언론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니터 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통한 분업화와 세력조직화, 그리고 우리 미디어 업계의 성숙도에 합당한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미디어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서도 뉴스와 시사해설, 다큐멘터리 등 사실 기사 속에 비추어진 여성의 모습에 비판적 관심이 보다 많이 기울여 져야 한다. 드라마나 쇼 등 오락 프로그램은 미디어 소비자들의 세계관과 사회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미디어 워치 단체들과의 유대를 통해 시각의 세계화, 그리고 모니터 활동의 성숙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미디어 종사자 또는 연구자들의 전문단체들과의 유대를 통해 현실성 있는 미디어 비판과 이의 효과적인 언론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현재 여성전용 미디어로 일간지는 없지만 중앙의 주간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지역 주간 또는 격주간지와 2개의 유선 TV채널이 있다. 경쟁이 품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유선 TV여성채널이 2개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주간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너무 잡다하게 많은 것이 전체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는 듯한 인상이다. 전국적인 프로필을 갖추고 미디어 주류에 포함될 수 있는 매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언론이 국가의 제4부로서 군림하는 것이라면 이에 합당한 교육을 국민은 받아야 마땅하다.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정규 초중고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정에는 미디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운리의 이론과 실습, 그리고 언론자유의 남용 등 우리의 미디어 현실에 대한 성찰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행동강령

여성과 환경

이상영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정보자료실장

제 4차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 1차 초안에는 환경문제가 주요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초안에 여성과 환경이 주요 관심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어 10년전 나이로비 전략에 비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파괴를 지속불가능한 개발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위기의 주요 원인을 선진 산업화된 나라의 소비와 생산양식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 자연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해 여성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과 여성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을 기본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여성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 환경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점이라고 본다. 기본 관점은 지속가능성을 인류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지 못하며 여성을 대안 사회 건설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량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여성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기본관점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기본 관점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강화

- 빈곤과 환경파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빈곤은 특정한 종류의 환경적 스트레스를 주지만 계속되는 전 지구적 환경파괴의 주요한 원인은 산업화된 나라의 지속불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이며 그것은 빈곤악화와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 모든 국가와 민족은 전세계 대다수 민족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불균형 감소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로써 빈곤을 추방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자연자원의 악화는 공동체와 여성을 수입 활동으로부터 추방시켰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환경파괴는 건강 및 복지, 대다수 인구의 삶의 질, 특히 소녀와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환경적인 위험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독성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의 차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에 불균등한 영향을 끼쳤으며, 도시와 오염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계층여성들이 건강에 대한 위험이 높다.
- 여성들은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부양하였다. 생산자, 소비자, 양육자 및 교육자로서 여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여성들은 이제까지 자연자원과 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과 입안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들이 정책 결정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자연자원 관리자로서 과학자로서 환경 법률가로서 훈련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여성들은 환경 질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재정 관리와 법인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최근 모든 차원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비정부기구 여성의 빠른 성장과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비정부기구와 국가 제도에 있는 여성들 사이의 연결은 제도적으로 미약하다.
- 여성들은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고 자원 낭비를 하지 않는 환경윤리의 실천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역할해왔다. 여성은 특별히 지속가능한 소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건전하고 환경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다학문적이며 부문 상호간 접근하는 전략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은 모든 접근에 있어서의 기본이다. 여성들은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과 관리에 그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의 경험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환경에 대한 기여는 21세기의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성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과 지지없이 환상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 여성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존, 관리했다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정부는 모든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에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실천적이고 가시적으로 여성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진척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본 관점에 입각해서 정부와 지방자치체 및 국제 기구, 기업,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의 전략과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목표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남녀평등 관점의 통합,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과 개발 계획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부터 가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개발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안 사회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다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이는 한국여성환경인들의 '살림'의 관점에서 높여나가야 할 부분이다. 환경적인 관리와 자연자원에의 접근 및 지식 습득의 기회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고, 여성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하며 이 부문의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연결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전략목표는 여성이 자연자원 관리와 환경관리를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다른 분야의 목표(주류화, 세력화)와 맞물린다고 하겠다.

다만 여성이 자연자원 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략목표와 조치는 대강 다음과 같다.

전략 목표 및 조치

1. 모든 차원의 환경정책 결정에 여성의 전면적인 참여의 확대

정부나 지방자치체는,

- 1) 여성과 지역민들이 모든 부문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 2) 과학과 기술, 경제 부문을 포함하여 정보와 교육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촉진할 것.
- 3) 생물종 다양성 협약과 국내법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전통기술이나 의료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에서의 실행과 지식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촉진시킬 것. 또한 이러한 비법을 알고 있는 여성들의 지적 소유권을 국내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
- 4) 가정이나 작업장의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것.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여성의 노출 위험을 감소시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메카니즘과 생산기술과 농촌과 도시에서 하부구조의 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성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 6) 남성과 함께 가정이나 지역사회 및 작업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 7) 공공서비스나 공간환경의 건설, 도시 하부구조의 설계 제공 등 지방공동체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

정부와 국제기구 및 사적 기구(기업)는,

- 1) 지속가능위원회나 유엔 기구나 국제 재정 기구는 행동할 때 성차의 효과를 고려할 것.
- 2) 지구 환경 기구에서 후원을 받거나 유엔 기구에서 지출을 승인받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계획, 허가할 때 성적 관점을 관찰시키고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
- 3) 지구 환경 기구에 관계되는 영역의 프로젝트는 여성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이 관리하는 프로

젝트를 계획하도록 촉진할 것.

- 4) 정책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기술조언자로서 자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및 환경보호와 보존에 특히 풀뿌리 차원에서의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전략과 기제를 마련할 것.
- 5) 사회, 경제, 정치, 과학적 조직체가 환경파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촉진할 것.

비정부조직과 사적 부문은,

- 1) 여성과 관련된 환경쟁점을 지지하고, 환경보호와 보존을 위해 자원 이동이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 2) 여성들이 자원관리와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역할을 지원·강화하는 농업과 어업, 기술, 마케팅 서비스,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성적 관심사와 남녀평등적 관점의 통합 보장.

정부는,

- 1)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모임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줄 것을 포함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관점과 지식을 남녀평등에 기초하여 통합할 것.
- 2) 정책과 계획은 환경영향과 자연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일한 기여에 입각해서 평가할 것.
- 3) 소수집단 여성이나 원주민 여성 및 저소득계층 여성과 같은 특별한 그룹에 관한 자료를 모으거나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악화나 위험에 관한 조사에서는 여성이 어떻게 어느 정도 취급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보장할 것.
- 4) 농촌여성의 환경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지식과 실천들을 통합할 것.
- 5) 지속가능한 인간 주거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조사 결과를 주류정책에 통합시킬 것.
- 6) 여성의 역할, 즉 식량 수집과 생산, 토양 보전, 관개, 수자원 관리, 토지사용 계획, 산림 보호, 공동체 산림관리, 자연재앙 방지, 새롭고 재사용가능한 에너지 등 특별히 원주민 여성의 지

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조사를 촉진시킬 것.

7)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등하게 자원을 획득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장애물의 제거 및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

8) 과학과 기술, 경제,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학문을 소녀와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것. 그래서 그들이 지역차원에서 경제와 과학, 자연적이고 지역적인 자원 사용과 에코시스템을 위한 관리에 있어서 환경적인 원칙들을 결정하는데 선택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여성이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환경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소녀와 여성들을 이 분야에서 훈련시키고 이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촉진시킬 것과 이러한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특별한 투자를 할 것.

10) 남성과 여성에 적합한, 여성들이 계획하고 개발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촉진시키고 명확히 할 것.

11) 하부구조 구축이나 안전한 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에 대한 개발을 지원할 것.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계획과 정책 입안.

12) 2000년까지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보장할 것.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사적 부문

1) 생산과 기술, 산업 과정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 산업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

2)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생산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 어업, 상업과 산업활동 및 기술에의 투자를 촉진하는 구매력을 사용하도록 소비자를 장려할 것.(소비자 운동)

3) 유해상품을 소비자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나 심볼을 사용하여 라벨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기적 식품은 마케팅을 촉진하여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

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의 기구 설치 및 강화.

정부, 지역, 국제 조직 및 비정부 기구

1) 개발도상국, 특히 인간적인 자원 개발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여성의 사업능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과 어업, 소규모 자영업, 상업 부문의 여성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연구기관이나 지역 연구기관의 협력으로써 이루어지는 방법론과 정책 분석 및 참여적 행동 지향적 조사, 정보와 모니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보체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위해서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련된 여성의 지식과 경험.

(2)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 인한 환경과 자연자원의 파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3) 성적 이해와 환경과 개발 및 농업, 산업, 어업, 임업, 건강, 생물종 다양성, 기후, 수자원 등의 구조적인 연관관계의 분석.

(4)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하는데 기본적인 단계로써 환경, 경제, 문화, 사회와 성적 분석을 포함하고 발전.

(5) 여성에게 환경적인 기술을 전달해 줄 훈련 센터와 조사, 자원 센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3) 방사성 폐기물 등의 유해물질은 바젤 협약이나 국제 조약에 의해서 국제간 이동을 금할 것.

4) 지속개발위원회가 경제사회심의회를 통하여 여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의제 21의 이행을 검토할 때 여성지위위원회로부터 투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의제 21의 24장과 행동 강령을 이행하기 위해 기구들 내에서도 기구들 간의 협동을 촉진할 것.

행동강령

여자어린이

박애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행동강령 주요 부분

259.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회의에서 모든 아동에게 공포한 권리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며 이것은 남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지방 정치적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상, 국적 또는 사회 재산, 무능력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여아는 아동에서 성년기까지 차별받으며 성장한다. 어떤 곳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 비율이 105명인 곳도 있다. 이 불균형의 이유는 남아선호사상, 아동혼인을 포함한 조혼(early marriage) 여성에 대한 학대, 성적 착취 성폭행 여아차별을 포함하며 이 남아선호사상은 여자영아 살해, 태아 성 감별을 유발한다. 이 결과로 여아는 성인기에 남아보다 생존할 확률이 적다.

260. 여아는 자주 열등아 취급을 당하며 그들 스스로를 열등화시킨다. 이 어린시절의 차별과 방치는 평생동안 사회주류에서 스스로를 열등화 시키는 것을 유발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통솔력의 측면에서 남아들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아들에게도 유발된다.

261. 성을 차별하는 교육과정, 교육자들의 태도 교실에서의 상호관계들은 성불평등을 조장한다.

262. 여아들은 부모 선생 언론매체로부터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한다. 남녀는 모두 제 267 조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모의 권리와 의무 책임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 끊임없이 성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263. 몇몇 나라에서는 지난 20년동안 교육받은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적으로 남이는 여아보다 좋은 환경에 있다. 1990년 통계를 보면 130만명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조차 진학하지 못했는데 그 중 81만명의 아동들이 여아였다. 이것은 제 30조에서도 언급했듯이 관습, 아동노동, 조혼, 학교시설의 부족, 자금의 부족, 십대의 임신,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선생의 부족으로 인해 여아의 취학을 금지시키고 있다. 여아들은 가정에서도 많은 책임을 떠맡고 있으며 종종 학교와 가정에서의 이중책임에 시달리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와 조기 학업중단으로 이어졌다.

264. 많은나라에서 중등학교의 여아 입학률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여아들은 과학 기술적인 교육에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기회의 한계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한계를 가져온다.

265. 여아는 사회 경제, 정치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으며 결과적으로 남아에 비해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266. 여아는 영양상태, 정신적 육체적 서비스 부분에서 차별받으며 이것은 여아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보건에 위해적 요소로 작용한다. 개발도상국의 450만 여성들은 어린 시절 영양결핍으로 성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267. 국제인구 개발협약(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동등한 그리고 상호존중관계에 있는 성별관계(gender relations)를 향상시키는데 집중적인 주의를 요구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sexuality)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위 규정은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의 책임, 권리, 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아동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보, 사생활, 기밀, 존중, 동의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침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동에 대한 강령(actions)에서 보듯이 그들의 성에 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지침과 부모의 보조가 있어야 하며, 그들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감을 실행하도록 해야한다.

268. 15만이 넘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아들이 출산하고 있다. 어린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의 사망률도 높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어린나이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망위험은 평균수치보다 높다. 전세계에 걸쳐 어린나이에서의 출산은 여성교육, 경제, 사회지위 향상의 방해요인이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조혼과 조기출산은 고용과 교육기회를 뺏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269. HIV/AIDS를 포함한 성에 대한 병과 해는 아동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여아는 성관련 업무에 고용될 압력에 직면하기 쉽다. 사회적 압력, 보호법률의 미비라는 등의 요소에 의해 여아는 모든 법에 대해 해를 입기 쉬우며 특히 장기간매매나 노동에 강제될 가능성도 있다.

270 무능력자에 대한 기회의 평등에 대한 UN 규정의 견지에서 무능력한 여아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존엄성을 동등하게 차별없이 누릴 수 있음을 확인 한다.

272. 예외없이 여아에게는 이 모든장벽을 제거할 힘이 주어져야 하며 동등한 교육, 영양공급,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 정보를 통해 그들의 모든 잠재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273. 아동과 청년에 대한 이 선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통해 성에 대한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또 남아, 여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아에 대한 모든 차별의 제거

274. 정부에 의한 노력

1) 아직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즉시 비준과 동의를 해야 하며 1995년 말까지 인간존엄성에 관한 권리에 대해 세계회의의 권고사항을 비준해야 한다.

275.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노력

1) 아동에 대한 성별, 나이로 분류된 모든 정보의 해체를 실행하고 여아의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여아에 관한 정책, 결정 등을 공식화 한다.

2) 최소 법정혼인연령에 대한 입법과 사회적 원조를 실행한다. 특히, 여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다.

정책 L 2 『여아에 대한 불평등한 문화적 태도와 관습』

1)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이에 근거한 단체 활동을 원조한다.

2)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아에 대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해를 끼치던 교육시설과 교과서를 개혁한다.

3) 여아의 생활, 일할 기회와 자아성취를 위한 교육지도 시설, 교과서, 교육과정을 채택, 개발한다. 특히 여아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수학, 과학, 기술 분야를 채택, 개발시킨다.

4) 이렇게 실행하여 전통적 종교, 그들의 표현들이 여아에 대한 차별에 기초를 두지 않도록 한다.

정책 L 3 『여아의 권리와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여아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특별보호가 필요하며 자아와 자부심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정책 L 4 『교육분야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교육 개발을 한다.』

279. 정부에 의한 노력

1)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남녀아동의 구분을 없앤다. 아동권리협약 제 28조에서 보듯이 이에 부합하도록 2005년까지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술적 교육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도 동등함을 부여한다.

2)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기에는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전반적이고도 개인적인 천부인권을 형성한다는 교육을 포함한다.

3) 취학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여아들이 학업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캠페인, 유동적인 학교 스케줄의 조정, 장려금, 장학금, 미취학아동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280.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노력

1) 여아들에 대한 정책결정의 기회 및 고용기회를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 기능과 연관된 기술을 교육한다.

3) 무능력한 여아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적절한 교육을 한다.

4) 교육과정 이외에 스포츠, 드라마, 문화활동과 같은 활동에 여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정책 L 5 『건강 보건에 대한 차별폐지』

282.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노력

1) 음식분배, 보건, 건강관련 부문에서 여아들에게 차별 철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건강, 영양상태에 대한 정보를 여아, 부모, 교육자, 사회에 제공하며 초기 임신과 관련한 건강문제의 위험성을 알린다.

3) 건강교육, 특히 기초건강에 대한 제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는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교육을 포함한다. 여아의 심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어머니를 참여시킨다.

4) HIV/AIDS나 다른 성관계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여아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행동의 견지에서 이에 필적하는 교육을 하며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는 국제인구개발협약의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보고에 부합하도록 하며 본 강령 제 267조에 언급된 부모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5) 여아 특히 청소년기의 소녀에게는 다음의 정보들을 보급하고 교육시켜야한다. 이 정보들이란 성에 관한 전염병, HIV/AIDS의 예방이다.

6) 여아의 이익을 위하여 기초단계의 교육과정 출발의 시점과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책임있는 지위를 강조한다.

8) 여아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 건강 프로그램과 교육자를 양성한다.

9) 아동건강에 대한 관습, 편견을 제거하는 견지에서 아동권리협약 제 24조를 명문화 한다.

정책 L 6 『아동노동의 경제적 착취를 배제하고 노동현장의 여아를 보호한다』

1) 아동권리협약 제 32조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착취, 아동교육기회의 박탈, 아동건강 심신과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위해가 되는 어떤 노동수행으로부터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현존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아동노동 최소 연령을 입법한다. ✓

2) 국제 노동법 기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활동분야의 소녀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아동 고용을 위한 최소연령을 정한다.

3) 고용최연소연령의 규정, 적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사회적인 보호범위의 적용,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여아를 보호하도록 한다.

5) 국제 노동법, 정책의 형성을 안내하는 ILO기준들 중 근로아동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포함하여 알맞은 한도에서 기존의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상용한다.

정책 L7

283.

1) 아동근로에 있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아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법안들을 제정하고 강화하는 효과적인 활동 수단을 수용한다.

2) 가정과 사회내에서 성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심리적 물리적 폭행상태나, 혹사, 방치나 부주의한 대우, 학대나 착취 등으로 부터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이고 관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교육적인 알맞은 수단을 사용한다.

3)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아들을 위해 그 회복이나 사회복귀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련되 성에 민감하도록 훈련시키고 여아를 위한 정보나 지원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자영아 살해, 태아성감별, 생식기 절단, 근친상간, 성폭행, 성적착취,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모

든형태의 폭력으로 부터 여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한다. 폭력에 종속된 여아들을 도와주기 위한 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지원 서비스와 나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책 L 8.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과 문제점에 대해 여아들을 교육시킨다.』

284.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노력

- 1)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아를 훈련시키고 정보를 획득하고 매체와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 2) 여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비정부조직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조직들을 지원한다.

정책 L 9 『여아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가족의 역할 책임감을 강화한다』

285.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노력.

- 1) 30조에서 묘사된 바 대로 가족들이 그들의 지원교육 양육하는 역할을 잘하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가족내에서 여아차별을 없애도록 강조한다.
- 2) 30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아의 잠재력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시키는 지원적이고 예방적인 수단들을 제공하는 측면으로서 가족을 강화하는 환경을 확산시킨다.
- 3) 30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년소녀를 동등하게 대하고 가족내에서 소년소녀간에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을 교육하고 복돋아준다.

패널토의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한국여성운동 전략

정치세력화

경제세력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환경

여성과 평화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전략

손 봉 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1. 활동방향 및 행동전략

활동 방향

1. 평등한 참여를 추구하자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참여는 다른분야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유엔이 서기 2000년까지 사무처의 고위정책결정직에 50%의 여성을 임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이번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33.3%의 여성을 할당제로 고위직에 참여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서기 2000년을 목표로 남녀의 평등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목표로 여성정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눈으로 정치를 보자

21세기는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리더쉽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여성정치참여는 여성공직자의 양적 확대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여성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환경문제나 노동문제, 인권문제, 복지문제

등을 여성의 시각에서 풀어 갈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시각은 여성을 위한 시각이라기 보다 여성의 시각이 투영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자

21세기는 생활정치가 정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환경이나 복지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정치적 협상과 토론의 주요 대상이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생활정치의 활성화는 일상생활의 주체인 여성들이 남성못지 않은 정치의 주체로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정치화 내지는 정치의 생활화로 여성을 정치세력화 해 나가는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의식변화를 추구하자

“여성은 정치와 무관하다” 또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는 새로운 리더쉽을 요구한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며 폐쇄적인 남성중심적인 리더쉽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환경중심적인 새로운 리더쉽으로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시대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의식을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행동 전략

민간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여성지위향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인 조치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한다.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감시 감독한다.

-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한다.

-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열린 정치를 통하여 남녀의 균형된 정치참여를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는다.
- 입법, 행정, 사법부에 남녀 평등참여를 촉구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간다.
- 입법부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같이 각급 지방의회에 여성특위를 두도록 한다.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고 여성이 정계에 입문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다.
- 각급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직급별 할당제를 채택한다.
- 정부와 공공부문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
- 할당제 도입에 따른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정무장관(2)실을 여성부(처)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을 강화한다.
- 중앙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임용에서 모범을 보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을 고위직에 임용토록 한다.
- 모든 정부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 검토하고 평가한다.
- 정책결정과정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의 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여성의 의식교육, 사회교육에 힘쓴다.
-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균등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여성관련 연구와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
- 남녀가 함께 사는 평등한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창조에 힘 쓴다.
- 유엔사무처 및 유엔산하각종 기구에 국가차원에서 남성과 같은 비율로 여성을 추천하고 지원한다.
- 유엔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기타 국제 및 지역간 회의에 남녀가 같은 비율로 참석하도록 지원한다.

2.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당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투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 선거제도, 정치자금법, 정당법등을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정한다.
- 정당활동에 여성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함을 정강정책으로 명시한다.
- 전국구의석의 50%는 여성에게 할당한다.
-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를 적극 지원한다.
- 정당의 각종위원회 및 사무처 요원의 50%는 여성으로 한다.
- 당내 민주화의 추진으로 여성정당활동 분위기를 쇄신한다.
- 여성의 시각으로 정당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3. 유엔은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각국의 여성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은 세계 각국의 균형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이 각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조정한다.
- 행동강령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표하여 각국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가한다.
-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한다.
- 고위직 여성들이 각국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점을 매년 비교연구하고 그 결과를 세계에 확산시킨다.
- 우선 유엔 사무처부터 고위직급에 여성을 50% 충원하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다.
- 유엔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대표로 파견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4.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당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정부, 정당 및 유엔등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한다. 효율적인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마련한다.
- 여성과 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밝혀내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사례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선진적인 전략/전술에 관한 지식을 확보한다.
- 가정에서 가족간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한다. 많은 경우 가정에서의 고

정된 역할이 여성의 정책결정직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 여성인력은행을 만들어 여성고위직 충원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활용한다.
- 여성들의 공직진출을 권장한다.
- 여성들의 정당활동을 촉구하고 선출직에로의 진출을 활성화한다.
- 유능한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시킨다. 후보자교육, 유권자교육, 일반여성의 정치의식교육등 사회교육을 망라한다.
- 선거를 통한 공직충원을 위해 여성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선거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연대활동을 활성화한다. 조사연구 및 대안마련에서 부터 이의 실현을 위한 건의, 서명운동, 청원, 서한보내기 등등 로비활동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을 증대시키고,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다차원적으로 추진한다. 연대활동의 범위를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 여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모니터를 활성화한다.
- 여성의 정책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대한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여론조성활동이 필요하다.
- 국제교류 및 지역간, 국가간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세력화

장 하 진 대전·충남여민회 대표, 교수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세계적으로 현재 여성운동이 사회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형성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또한 인류가 해결해야할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가 여성문제라는 것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NGO 회의장의 분위기나 토론내용 또는 행동강령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실천방향과 커다란 거리를 갖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경에 모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고 활발할수록 한국여성들이 가야할 길은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한국여성의 지위는 시사하는바가 크거니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며 그 경제 성장의 기반이 여성노동력이었다. 이제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미룬 숙제를 해결해야 하며 성장에 대한 대가를 여성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갈림길에서 전체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도 질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에대한 질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혼여성노동에서 기혼여성노동으로, 단순노동에서 숙련노동으로, 또한 다양한 유연적 형태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고용은 증가해가지만 다른 한편 고용불안정 현상은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점에서 여성노동의 평생평등권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질적으로 저하되어갈 전망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환기에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북경대회

의 행동강령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들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과제들이다. 2000년까지 과연 그러한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정부는 여성문제를 중요한 독자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행동강령 실천의 중요한 한 당사자 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크게 기대해 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정부의 여성 노동이나 경제정책의 기본입장은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고취의 입장에 서있기 보다는 노동력 동원이나 효율적 활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차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개선은 개별적 또는 의식적 차원에서의 해결보다는 제도적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성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해결은 여성들의 조직력을 요구한다. 수직적, 수평적 성별분업의 극복, 산업구조조정과 고용불안정의 해소, 위기에 처해있는 여성농민의 문제는 한국의 경제구조의 전반적 개선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보건, 농업, 복지, 노동등의 분야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분야에 여성들의 조직적 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개별적 또는 자발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기존의 여성단체의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여기서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영역들과의 수평적 연대의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즉 여성들끼리의 연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 각 분야들의 조직들과의 연대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영세기업체나 시간제노동 등의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위직이나 공공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율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공식부분에서 여성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세력화의 문제는 사회적 노동영역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택아와 가사노동의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하여 공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신혜수 한국 여성의 전화 회장

1. 일반전략

1) 우선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에 대해 여성운동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2) 여성운동계가 2000년까지 5년간의 우선 순위를 분야별, 내용면으로 정하고 이를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택한다. 재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해당년도 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정부에 제시한다.

우선순위의 결정

- 분야별 : 경제세력화, 정치세력화, 인권 등

- 내용면 : 법제정 및 개정의 차원, 법 운용 및 집행의 차원, 사회관습 및 의식개혁의 차원 등

3) 정부에게 national action plans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위항의 여성운동계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한다.

- 4)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사회에서 행동강령이 얼마나 이행되었는가를 점검하는 여성운동계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 5)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행동강령이외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6) 정부의 각종 위원회, 행정부, 기타 정책 결정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물색, 양성, 추진한다.
- 7) 진보적 남성들과의 연대를 구축한다.
- 8) Mainstreaming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적으로 한 분야 (예를 들면 경제, 또는 미디어)를 먼저 택하여 집중적으로 운동한다.
- 9) 외국의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2. 성폭력 인권 분야의 전략

- 1) 성폭력, 여성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집행 — 기존 법의 제정, 및 새로운 법의 제정,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동성동본 불혼 폐지와 함께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법률적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복지 정책 및 예산집행을 분석, 점검하고 여성복지를 확대하도록 모니터 활동을 한다.
- 4) 성폭력에 대한 성별 통계를 내도록 요구한다.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기소된 사건, 재판에 회부된 사건 등을 성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나올 수 있게 한다.

- 5) Gender-sensitivity training —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 검찰, 재판부, 의료인 등 관련인사들을 교육,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 6)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응을 가장 바람직하게, 또는 가장 최악으로 한 경찰(서), 판사등을 선발하여 이를 발표한다. 여성인권상 신설을 고려 한다.
- 7) 유엔의 기구 및 국제협약의 적극적 활용 —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여성인권 상황, 성폭력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서 이를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정부가 1997년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민간의 입장에서 대안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권사안 중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8)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반대, 일본상품 불매 위협 등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증대시켜 나간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여성과 전쟁 사료관' 건립운동에 동참한다.
- 9) 여성운동계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지 않은 여성폭력, 인권분야의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 외국인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문제, 태아성감별, 및 낙태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여성과 환경분과 북경대회 참가 보고 및 향후 운동방향

이진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1. 여성과 환경분과 북경대회 참가보고

1) 준비과정

환경과 여성분과는 2월 15일 제 1차 워크숍을 기해 환경단체의 여성실무자, 여성단체의 환경담당 실무자 및 여성문제, 환경문제 전문가가 연대하여 북경대회에 대비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11개 단체가 연대하여 '여성과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네트워크' (약칭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 Korea NGO Network on Wome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탄생하였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배달환경녹색연합,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생태사회연구소, 한국불교자원봉사연합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민우회, 원불교 여성환경위원회, YWCA,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북경대회 준비과정은 환경단체와 여성단체의 실무자, 환경 및 여성전문가가 교류하고 운동론을 만들어가는 활발한 움직임의 장이었으며, 3차례의 공개 포럼을 비롯한 수차례의 내부 워크숍, 2권의 여성과 환경 총서 발간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북경대회에는 23명이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후이로의 NGO포럼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등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2) 북경대회에서 여성과 환경 분야의 위상에 대한 전반적 인상

북경여성대회의 전체 진행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여성과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약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키워드에 환경 및 지속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급세기 최대규모의 정상회담인 사회개발정상회담을 비롯, 거의 모든 세계대회에서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키워드에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북경여성대회가 21세기에 있어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논하는 대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전체의 틀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이 방향의 문제제기가 여성분야에서는 대단히 부진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다른 UN회의들이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인류발전의 기본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경여성대회는 발전의 시각이 여전히 지속가능성의 문제의식이 결여된 근대적 성장개념을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대화문서인 베이징 액션플랜에서는 환경, 개발여성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 밖에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환경관련 프로그램이 예상외로 적었으며 전문가 중심의 워크숍에 서조차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추상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환경문제 자체의 역사가 짧은 데다 여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활동 및 논의의 여지는 더욱 짧고 여성과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단체가 대단히 드물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추진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3) 북경대회에서 나타난 여성과 환경관련 주요 이슈 정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워크숍에서 여성과 환경문제는 항상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워크숍은 진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보여주었는데, 크게 선진국의 입장과 후진국측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3세계에 있어서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개발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서구의 프로젝트가 원조 분담금에 대한 이자율 증가, 농산물과 공산물의 국제적 협상가격차와 맞물리면서 개도국에 오히려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가중되어온 빈곤 및 성적 불평등의 심화가 제 3세계여성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후진국에 공유되는 사안으로는 반핵, 에너지 절약 및 대안적 에너지 개발, 유해물질등의 위해성 등이며 이들 주제를 공통으로 피고 있는 큰 흐름은 환경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이다. 방사성 물질, 이미 산업사회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각종 유해물질, 저질연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등이 인간과 그 후손을 두고 두고 어떻게 망칠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섬뜩한 사진 및 임상보고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토론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4) 한국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의 활동

네트워크는 경실련, 배달환경연합 등 7개 단체의 실무자 11인과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실무자 11인의 두개의 팀으로 나뉘어 서로 교류를 하면서도 구별되는 활동프로그램을 가졌다.

경실련 등 7개 단체팀은 아시아 지역 17개 환경 및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9월 1, 2일 이틀간에 걸쳐 '행동하는 대안(Alternatives in Action)'이라는 워크샵을 가졌다. 대안적 사회는 우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여성의 시각으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가 대회준비과정의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으며 이 17개 아시아 지역 단체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단체들이다. 이들은 워크샵 '행동하는 대안'을 통하여 관념적으로만 대안을 논하지 말고 소박한 일이라도 실천에 옮겨 구체적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소개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대안' 네트워크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한국 여성환경 네트워크도 주도적인 멤버로 활약하기로 했다

또한 이팀은 동시통역 장치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워크샵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성 환경 개발기구(WEDO), 아시아 태평양 환경네트워크(APPEN), 농촌도시의 대안(RUA) 세계상점(world Shop)등의 여성환경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성운동과 직접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환경운동연합팀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환경운동가와 함께 '아시아의 여성환경운동'이라는 워크샵을 통해 한국여성 환경운동의 노정을 발표하고 핵 피해 사례의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동아시아 여성 환경 정보 네트워크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부스를 운영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여러 여성환경단체와 함께 반핵 시위를 조직하였다.

2. 향후의 운동전략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잠재력의 발전 극대화

- 주부, 미혼, 기혼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상기 교육 실시 및 행동에의 참여권유
- 작은 실천부터라도 시작하는 사회적 분위기 진작

2) 국내 여성단체 및기타 여성계와의 적극적인 연대

- 환경운동 관련단체 외에도 여성단체와의 저극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기반확대
- 여성단체의 환경 프로그램 추진에 협력
- 전문직 여성 및 경제세력이 될 수 있는 여성의 동참 확대
- 의사, 언론인, 교육자 등 환경문제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들과 적극적 연대
- 여성관련 정책에 관여하는 인사에 대한 정책 촉구

3) 여성과 환경, 개발에 대한 논의의 사회적 확대

- 환경운동 실무자 및 여성문제, 환경문제 전문가가 참가하는 포럼 개최,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리 개발
- 여성과 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재활용, 실천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끌어올려 여성의 시각과 경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형성
- 21세기 지속가능성 시대에 합당한 여성상의 형성과 사회적 확산에 노력

4) 해외여성과 환경 관련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

- '행동하는 대안' 네트워크, 동아시아 여성 환경 정보 네트워크 등 북경대회를 통해 맺어진 연대를 지속
- WEDO WIE DAWN 등 역사가 길고 활동이 활발한 여성환경단체와 교류
- 가능하면 해외의 여성환경 운동가들과의 워크샵 주최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

김숙임 기독교민회 대표

1. 평화 NGO 포럼 - Focus

개막식 이후 8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전개된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워크숍은 460여개에 이른다. 하루 평균 50여개 이상되는 평화포럼은 폭력, 건강, 종교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군축, 평화교육과 문화, 난민, 재향군인, 인신매매, 강제종군위안부, 여성군인들의 문제 등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준비부족 등의 사정으로 취소된 워크숍도 많았다.

내전중인 보스니아,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 전후의 캄보디아, 베트남,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여성, 핵실험의 주대상지역인 남태평양 원주민 여성과 티벳여성, 체르노빌, 키에프 등 러시아의 핵무기제조회사 및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주민 등 수많은 나라의 평화 NGO들이 자신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평화운동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 NGO들도 정신대문제 세미나, 남북여성의 만남 등, 워크숍 등을 통하여 그 대열에 가담하였다. 다음은 평화NGO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압축 요약한 것이다.

20C초에는 전쟁전사자의 약 90%가 군인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약 90%가 민간인인데 여성과 어린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십년동안 전례없이 발생된 군사분쟁으로 5천만의 피난민이 전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중 75%가 여성과 아동이다. 150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죽고 4백만 이상이 영원한 불구가 되었고 천5백여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천만명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셀 수 없이 많은 소녀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으며 강간은 소수민족이나 종족말살 등의 전술적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310회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 지역들은 핵폐기물처리장으로 파괴되며, 3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가 피해를 받고 암 유발 등 건강이 절대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전 지구적으로 64개국에 10억개가 넘는 지뢰가 산재되어 있으며, 지뢰로 인해 불구가 된 여성은 남자에게 버림받는다.

현재 세계 군대에서 쓰는 돈은 1분당 2백만달러이다. 세계시장경제가 북반구중심의 군수산업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TNC중심의 무기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핵실험이 계속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기를 만드는 한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평화 없이는 생존과 어떤 종류의 발전도 불가능하므로, 평화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지구상에서 평화와 인간안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핵을 포함한 일체의 무기를 생산 판매, 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비삭감, 플라토늄 제조 반대운동, 핵실험과 제조에 쓰이는 예산의 즉각 정지, 무기수입예산에 비례한 세금안내기, 핵무기제조회사의 상품에 대한 불매, 징집반대 등의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통된 내용은 전쟁과 분쟁, 무기확산을 중지시키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문화만들기를 위해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하며, 참여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여성의 의무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에 관한 워크숍과 Plenary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Peace Tent를 조직한 단체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E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이다.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군축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이 조직은 1915년, 1차세계대전 이후 창립, 산하에 42개의 여성평화조직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UN의 자문기관으로서 10년전 제3차 나이로비 여성대회때에도 평화텐트를 후원하였다. 평화텐트에서는 군축의 날, 평화교육의 날 등으로 주요 이슈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 북경여성세계회의의 행동강령 - 평화에 대하여

'평화없이는 평등,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화두로 시작된 평화 강령에서 앞으로 현실적인 국가적, 국제적 근거가 될 수 있게 채택된 내용은 전쟁과 분쟁상황에서의 강간(특히 조직적인)은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로서 인종말살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에 해당, 전쟁범죄자의 기소, 처벌,

희생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E3, d - f)이다.

이 내용이 채택되게 된 것은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전부터 북경회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온 한국여성NGO와 아시아여성NGO연대의 집요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문화를 촉진키 위하여 청소년에게 평화교육프로그램 실시함으로써, 관용을 증진시켜 갈등을 해결한다는 내용(E4, e)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강대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핵실험에 대해 어떠한 국제적인 처벌로서 규제조치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E2, f; 핵무기 제거를 촉진해야 한다라는 정도) 과 무기감축을 위해 군비삭감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강력한 조치가 없는 점은 여성회의가 다른회의에 비해 세계평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잘 살려내지 못한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전략

(1) 기본전략

1) 평화에 대한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사회에 확산시켜 나간다.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여성들의 평화운동 전망은 넓고 장기적인 목적성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 집단, 가치관으로 전쟁, 폭력, 반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평등, 관용, 협력, 화해라는 개념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2) 군사안보를 인간안보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무기 및 군사력 중심의 군사안보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시대를 만들고 평화를 실현시켜 나간다.

(2) 행동전략

1) 평화문화 증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촉진하기

- ① 여성단체들마다 평화 가치관 형성과 전략 중심의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여성지도력을 배출해야 한다. 평화운동에 대한 여성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야 한다.

- ② 정부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평화운동지도력을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무기감축 및 군비축소, 폭력수단제거를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하기

- ① 군사비 삭감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방위비는 총예산의 22.1%인 11조 744억이었는데 96년도 방위예산이 4년 만에 두자리수인 10.7%의 증가율을 기록, 12조 736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방위비 증가는 무기를 증강시키고 동시에 여성복지와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냉전의 지속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에 대하여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여러 요구활동이 있었으나 방위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해 여성들의 단합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 ② 무기감축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기전시회를 통해 무기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96년 한국은 미국 무기의 제 1위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민족공동방위전략의 확립을 요구하고 또 남북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남북한의 상호군비축소를 위해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무기감축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전력축소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③ 우리나라 방위비중 2조 456억원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분담금으로 사용되는데 미군 주둔비의 78%를 차지한다. 외국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분담금을 미군기지 사용료 요구운동, 외국군 주둔 기지반환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철수를 통해 국민복지예산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④ 정부는 군비통제실등 전반적인 군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에게 정보와 자료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여성대표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전쟁 및 갈등상황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유린을 감소하기

-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하여 국제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였는데, 이제 그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일본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고 책임자 처벌, 배상을 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상조사를 속히 진척시키고 일본의 민간 위로금을 거부하는 대신 국민모금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정신대할머니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②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는 약소국 여성의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이다.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에 비해 훨씬 나후된 미군지위협정등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 자행되는 성범죄에 대해 여성의 연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정부는 법률개정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나서야 한다.

4) 갈등해결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화를 위한 여성지도력을 증진시키기

무력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과 참여가 중요하다. 여성들이 국제적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강대국 중심의 불공정한 핵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남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강제당하고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가 세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전지구적으로 핵불사용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설득력있고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평화를 위한 활동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성평화감시단의 파견, 활동을 위해 여성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이 평화를 위해 국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지원하여야 한다.

5) 난민여성을 돕기

여성과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유럽처럼 난민여성돕기에 어느정도 환원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난민여성에게 피난처 제공, 식량 및 의료서비스 등 자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평화운동을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현재 한국여성운동은 평화운동을 위한 전문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에 있어서 평화운동의 국제화, 전문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평화여성조직과 연대하고 UN과의 관계와 지역별, 나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평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평화문화를 확산시키고 평화를 위한 정책을 확립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여성운동가들의 인식의 전환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여성운동은 이러한 평화운동의 전망 속에서 국민대중들에게 평화의 정신을 심어나가고 동시에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여성과 교육

종교와 여성

참관기/맥 못춘 세계의 개(?)목걸이

여성과 교육

곽윤숙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우리는 '교육받는다'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 좋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인간권리의 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 있어서 교육, 특히 제도교육이나 형식교육은 만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전유물이었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지배계층의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교육이 더 이상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의 계층, 성, 지역,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기회 균등'의 이념은 오늘날 교육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여성은 교육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형식적 교육기회가 확대된 현재에서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여성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고 현재 한국 여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1. 한국여성교육의 단계

한국교육사에서 여성이 제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이제 1세기를 갓 넘어섰다. 한국에서의

여성교육의 역사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여성을 위한 형식교육이 전무하던 시대의 비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기(전통적 여성교육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19세기말 여성을 위한 근대적 학교교육이 시작되어 해방에 이르는 시기(근대적 여성교육기)이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해방 후 민주주의 교육이념이 도입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현대적 여성교육기)로 나눌 수 있다.

(1) 전통적 여성교육기: 비형식적 교육을 통한 전통적 성역할 훈련

근대교육이 시작되기 전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은 제도교육이나 형식교육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형식교육으로만 존재했다. 여성들은 가정교육에 국한되어 유교 정신에 입각한 가내 범절과 약간의 문자를 배울 정도이었다. 문자교육은 양반가정의 여자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맹이었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부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여성교육은 지육의 면은 제외되고 가사기술과 유교정신에 입각한 덕육만을 강조하였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도 여성과는 달리 남자를 위한 교육기관은 성균관, 학당, 향교 등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서원, 사당과 같은 사학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설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학, 사학 할 것없이 모든 형식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여성은 형식교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여성교육은 비형식적 교육,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성역할 중심의 생활훈련이 교육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적 여성교육: 형식적 교육에의 접근

근대적 여성교육기는 19세기말 개화기로 접어들면서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외국의 기술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 시작된다. 1886년 이화학당의 설립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학교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육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학교교육의 기회가 부여된 셈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여러 여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집 규수보다 가난한 가정의 여아나 고아들이 여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 한편 1898년 찬양회라고 하는 부인회가 조직됨으로써 순성학교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에 의한 사립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관학에로의 교육기회의 통로개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국에서 제도상으로 신학제를 실시하여 관학을 세운 것은 1894년 갑오경장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남성을 위한 교육법규는 공포하면서 여성을 위한 교육법규는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8년에 이르러서 관립여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으며 같은 해 4월 칙령 제22호로 여성교육을 위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열리게 된 제도교육에로의 접근기회의 부여로 초중등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1910년에 이화학당에 대학과 신설됨으로써 고등교육에로의 통로도 개방되었다.

이 시기는 근대적 교육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여성을 위한 제도교육이 시작됨으로써 비형식적 교육의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여성에게 마침내 형식적 교육기회가 부여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남녀학교 교육이념이 각기 별개로 진술되긴 하였지만 여성을 위한 교육이념이 남성의 교육과 같이 공식적 위치에서 성문화,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상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년한은 남학생의 교육년한에 비해 1년씩 적게 배정되었다. 중등교육에서 남자의 교육년한이 5년 일 때 여자는 4년, 대학교육에서 남자가 4-5년일 때 여자는 3년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형식교육에의 문호는 개방되었지만 남녀 이중분리구조를 지닌 차별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현대적 여성교육기: 양적 교육기회의 확대

1945년 해방 이후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한 교육체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학생수에 있어 현저한 양적 증기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해방 전 남학생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던 여학생수가 남학생수와 동등한 수준에 가까울 만큼 양적 팽창을 보이게 되었다.

헌법 31조에 남녀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져야함을 명시함으로써 남녀평등교육에 대한 제도적,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남녀 별개로 분리되어 진술되었던 남녀학교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민주시민과 같은 교육이념으로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남녀간의 교육년한의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교육제도가 단일화되어 교육제도상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2. 한국 여성교육의 현황

여성교육의 현황을 1970년에서 1993년 사이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 취학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교육

1970년 이후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에 있어 남녀 모두 100% 취학을 실현하였다. 초등

교육에 있어서 남녀격차는 찾아볼 수 없다.

(2)중등학교

여자의 중학교 취학률을 보면 1970년 46.5%에서 1993년 96.5%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취학률의 성별간 격차도 점차 줄어들어 남녀차가 거의 없어졌다. 1993년 현재 통계수치로는 여자의 취학률이 남자의 취학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국민학교 취학률			〈표 2〉 중학교 취학률		
연도	여자의 취학률	남자의 취학률	연도	여자의 취학률	남자의 취학률
1970	101.9%	102.9%	1970	46.5%	65.1%
1975	103.4%	103.0%	1975	67.0%	80.8%
1980	101.4%	100.7%	1980	92.6%	96.4%
1985	102.5%	99.4%	1985	99.3%	100.0%
1990	100.1%	99.5%	1990	98.2%	98.6%
1993	101.9%	101.0%	1993	96.5%	96.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여자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4.1%에서 1993년 8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별간의 취학률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어 1993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에 있어 남녀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고등교육

초급대학,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취학률을 살펴보면 여자의 대학교 취학률은 1970년 4.1%에서 1993년 29.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녀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현재 여자의 취학률은 여자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여성교육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형식적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녀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고등학교 취학률

연도	여자의 취학률	남자의 취학률
1970	24.1%	36.7%
1975	35.8%	51.1%
1980	62.2%	74.4%
1985	74.5%	81.9%
1990	83.8%	90.5%
1993	89.1%	90.8%

〈표 4〉 대학교 취학률

연도	여자의 취학률	남자의 취학률
1970	4.1%	11.5%
1975	4.5%	10.8%
1980	8.4%	24.3%
1985	22.9%	50.2%
1990	23.9%	50.0%
1993	29.9%	57.9%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3. 한국 여성교육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있어서 취학률의 남녀격차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여전히 남녀격차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있어서 대학교육과 같은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열이 특별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계층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의 40%에 가까운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대학교육이 취업을 보장하거나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여성들의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성이 취업기회에 있어서 불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직업을 얻는데 실패하는 원인을 교육내부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다수의 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영역에 집중되고 시장성이 적은 전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여성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직업과 관련하여 낮은 지위와 보수를 가져다 주는 특정영역의 전공에 한정되어 있다. 남학생은 자연과학, 공학, 경영학과 같은 영역을 많이 선택하는 반면 여학생은 인문과학, 언어, 교육, 예술 등과 같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표 5〉 대학전공별 여학생의 분포

계열	전체비율	여학생비율	여학생구성비
인문계	14.7%	23.9%	47.7%
어문학	11.0%	19.2%	50.9%
인문학	3.6%	4.7%	37.9%
사회계	27.2%	17.6%	18.9%
자연계	41.6%	28.0%	19.9%
이학	9.3%	10.9%	34.3%
공학	23.8%	5.3%	6.5%
농림학	5.2%	4.6%	25.8%
수산해양학	0.8%	0.3%	10.6%
가정학	2.2%	7.0%	92.2%
의약계	3.9%	4.7%	35.5%
예체능계	6.9%	13.4%	56.7%
예술학	5.3%	11.4%	63.6%
체육학	1.6%	1.9%	34.8%
사범계	6.1%	12.5%	59.7%
계	100.0	100.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1.

〈표 4〉에 의하면 여학생은 대학의 전공선택에 있어 특정계열에 편중되어 있다. 여학생들은 가정학, 예술학, 사범계, 어문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공학계열에 있어 진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졸실업률에 있어 계열별 격차와 학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80년대 이후 특히 악화되고 있는 계열은 사범대를 비롯한 인문계와 어문계이다. 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 사범계열은 여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남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은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의 기술산업사회에서 남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자연과학, 공학과 관련된 전공영역은 취업기회에서 유리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교육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고 교육적 전략의 핵심은 여성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남녀간의 양적 교육기회 균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현대사회에서 논의의 초점은 여학생들의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여성적인 전공이나 직업선택에서 벗어나 취업기회에서 유리할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는 남성적인 영역, 예를 들면 공학, 자연과학, 의학, 경영학등과 같은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종교와 여성

유 춘 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총무

'95 세계여성대회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표어를 가지고 1995년 8월 30일 북경에서 열린 UN이 주관한 제4차 여성대회였다.

이 대회는 1985년의 나이로비 여성대회에서 여성의 평등을 위하여 결의된 행동강령을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행했는가를 보고하고 또 향후 10년간 이행해야 될 행동강령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UN은 이번 여성대회를 위하여 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세계여성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기 위하여 NGO FORUM(비정부단체간 토론)을 계획하였다. 각국의 비정부 단체들이 그간에 활동하여 온 여성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북경에서 8월 30일에 NGO FORUM개막식을 가진 후 9월 8일까지 후아이루(Huairou)에서 각국으로부터 온 3만 6천명의 대표들이 각국의 여성문제를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제기하였다. NGO FORUM에서 시위되었던 여성문제는 정부간 회의에 거의 다 반영되었다는 평을 들을 만큼 NGO여성들은 각국의 여성문제들을 신나게 외치고 토론하였다. NGO FORUM의 진행은 30일 북경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의 개막식에서 열광적으로 손에 손과 어깨에 어깨를 끼안은 여성들의 물결 속에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이후 북경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후아이루에서 Global Tent를 중심으로 갖가지 여성차별에 대한 워크샵과 문화행사, 거리 시위 등이 펼쳐졌다. 후아이루는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계 모든 여성들의 망가지고 파괴된 현실들이 폭로되었고 큰 소리로 여성의 인권을 외칠 수 있는 '여성 해방구'였다.

정부간 회의는 북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UN에서 허락받은 방청자들도 참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NGO 대표단도 소수이나 참석하여 열심히 막후 로비와 의제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각

국의 이해관계 즉 G77과 그밖의 나라 등의 참여한 이해와 상황이 절충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각국 정부가 이행해야 될 '95 북경대회 행동강령' 채택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채택된 북경 행동강령 요지는 빈곤, 교육, 보건, 폭력, 국제적 갈등상황, 경제,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 관련기구(여성전담행정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여자어린이 등 12개의 의제에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위한 강령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은 한국종교분과여성들의 활동과 참가보고를 9월 29일 에 가졌던 북경대회 보고회에서(NGO 종교분과 주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주관) 있었던 보고를 엮어 소개한다. 중심으로 보고한다.

1. '북조선여성들과 남한여성 만남의 광장' 워크샵 보고

한국 NGO 여성 실행위 종교분과 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하여, '북조선과 남한여성 만남의 광장'이란 워크샵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UN에 여성교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의 세 이름으로 각기 워크샵를 신청했다. 그 이유는 혹시 안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으나 그 세 기관이 각기 방을 얻어 좀 당황했었으나 우리는 확신감을 가지고 이를 위한 준비를 했다. 우선 통일원 측에 북조선 여성 만남의 접촉신고를 할 것인가를 의논한 결과 그 쪽에서 울지 안을지 불확실한데다가,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정대협 심포지움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어 우리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우리 팀보다 뒤늦게 떠나는 나에게 통일원 직원이 위협적인 말로 신고 안하고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화가 왔다. 이에 나는 UN이 초청한 합법적인 공간에서 우리 대표가 세계여성대표들을 만나는 것은 자유이듯이 북한 대표들과의 만남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떠났다. 나는 북한 여성을 정신대 심포지움에서 만나 우리의 워크샵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정숙자목사, 윤순녀위원장도 부탁을 했으나 정식초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전달을 받고 결국 실망 가운데 9월 6일 오전 11시에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 사전에 우리 팀은 워크샵장소에 가서 세계의 장소를 한곳으로 정하고 방의 한 가운데에 색동 마후라로 십자가를 준비한 상자 주위에 한국에서 각자 준비해 온 선물과 맛있는 한국과자류를 진열하였다. 사방 벽에다 전날밤 정숙자와 박상희가 밤새 쓴 한글과 영어의 통일, 여성, 평화 등의 구호를 붙이고, 통일 평화의 여성교회 결개 그림과 여신협에서 준비한 "북조선과 남한여성의 만남의 광장"이란 현수막과 백두산 앞에서 통일 춤을 추는 여성들이란 한국여성신학 상징의 결개 그림을 장식하여 장내를 통일에 대한 절절한 바람으로 상징했다. 막상 시간이 되니 50명 예정의 방이 차고 넘쳐 100여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여성 외에 재미, 재일교포, 독일, 네덜란

드, 미국, 일본 등의 여성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NGO 이연숙, 이미경 공동대표와 이상덕, 박영혜, 최영희 등의 실행위원이 참석했고, 일본의 스미즈 여성위원 등이 눈에 띄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윤순녀 분과 위원장, 정숙자목사, 한국염원장과 의논하여 순서를 정하고 즉흥적이지만 익히 알고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했다. 정숙자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정숙자목사가 이 행사를 갖게 된 배경 즉 '95회년통일교회여성협의회'의 남북한 여성만남의 사전 준비모임 성격으로 이 모임을 준비했으며, 여성교회와 정숙자목사의 역할을 이야기 했고, 윤순녀씨는 여성들의 통일운동과 재야 통일운동과의 연대를 이야기 하고, 나는 왜 여성들이 가장 통일을 원하는가를 이야기 했다. 물론 우리 대표들은 잘 알지만 외국인, 재외동포들과 기자들을 위하여 나는 다음의 이야기를 했다. 1,000만명의 한국전쟁 이산가족 어머니들의 고통, 군사정권에 반대하거나 통일운동을 이유로 보안법에 걸려 구속된 가족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의 아픔, 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피나는 대가로 이룩된 현재 남한의 경제발전과 국방비 30%의 국가예산에 비해 여성복지정책이 겨우 2% 수준이라는 점,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가부장적 교권에 따른 성차별과 반공이 데올로기 영향에 따른 교회의 분단 고착화와 최근의 교회여성의 회년 통일운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김대실(재미작가, 영화작가, 감신대 1959년 졸)의 유창한 통역으로 우리의 주장이 잘 전달되었다.

한국염 원장은 자신이 당한 분단의 아픔으로 "나의 아버지는 월남하다 남한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장내는 곳곳에서 울음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상덕 NGO 총무가 "팔십이 넘으신 시어머님이 암으로 위독하신데 복에 있는 아들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애타는 이야기를 울음으로 잊지 못하였고 최옥실씨는 "여든아홉이신 아버지께서 요사이 자꾸만 복에 데려다 달라고 조르신다"는 눈물어린 당사자들의 현실 이야기 등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인 모두의 아픔과 통일 염원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모두의 소망이 담긴 절절한 노래가 몇번이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기자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하며 기사를 적는 모습을 보고 "진짜 기자 만났네"하며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이룩한 분위기의 확실한 전달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 독일여성참가자의 "독일통일 경험으로 볼 때 결코 통일을 정치가나 남성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끝나기 전에 준비된 다과와 선물을 나누면서 통일을 기다리는 한국 여성들의 아픔과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기약하며 북조선 자매들의 불참을 아쉬워하면서 뜨거운 만남의 광장을 끝마쳤다.

이 워크샵은 이번 대회에서 의외로 국내외의 관심도가 높았다. 나는 좀 더 주최측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면서 국내 보고대회시 보고와 더불어 여성들의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 '만남의 광장'의 결실을 가져야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외에 NGO FORUM에서 종교여성문제에 대한 워크샵들이 있었다.

2. "종교와 여성" 강연(W.C.C. Sponsored - Swiss)

이 강연은 W.C.C. 초청으로 가능했는데 종교가 여성에게 미치는 해방적인 요소와 억압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여성이 자신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혀 보았다. 여성이 종교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 필요한 기준, 주의할 점, 미래의 여성 중심 종교의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3. "여성과 근본주의"(Fundamentalism) Panel

이것은 Catholic for free choice(U.S.A)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가톨릭(Rosemary Reuther), 모슬렘(Lies Maicos), 개신교(정현경) 여성들이 모여 근본주의가 여성의 성, 몸, 사회 참여를 제약하면서 어떻게 정치 경제적 보수주의를 팽창해가는지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근본주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연대의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종교의 근본주의는 여성을 가정이란 사적영역에 남편의 지배아래 두므로서 여성들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 다시 말하면 사회활동에 가장 큰 장애의 요소가 되고 정치, 경제의 신보수주의와 결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권의 종교, 교회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두므로 여성의 지도력과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를 종교법을 통하여 억압하여왔다는 것이다. 종교의 근본주의는 성차별에 대한 정부간 회의에서 행동강령 채택에 토론의 진통을 겪고 결국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른다고 결론지을수 밖에 없을 만큼 종교가 문화, 법제도와 더불어 마치 새끼꼬기와 같이 분리 될 수 없는 현실과 근본주의의 여성억압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4. "From feminist backlash to feminist vision" Panel

이것은 미국에 있는 여성 재단인 "Sister Fund"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Betty Friedan(Feminin Mystique의 저자)과 히스파틱 여성신학자인 Ada Maria Isasi Diaz, 모슬렘 신학자 prof. Assin 그리고 정현경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 panel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 보수주의가

어떻게 여성주의자들을 억압하고 여성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을 극복하여 21세기를 향한 여성주의적 비전이 어떤 것인지 각자가 처한 상황적 특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5. 복음과 문화와 여성이란 워크샵

WCC(세계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서의 여성억압적인 전통이 기록된 성서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므로 성서가 그 시대의 가부장문화가 가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에 대하여는 해방적이지만 교회가 점점 제도화 되면서 그 시대의 가부장문화를 교회에 도입하므로 발생한 여성억압적인 한시대적 한계로 해석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회여성의 해방과 평등을 위하여는 다양한 문화와 상황에 따른 해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아프리카, 남미의 여성들의 성서해석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6. 원불교의 워크샵

원불교는 한국의 토착종교중 한 종단으로서 이의 진보적인 교리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화를 통해 상당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있어 기존의 종단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비교적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준바 있으며. 이는 개화기 초기에 수많은 여성들에게 해방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현대에 와서 여성문제에 있어 교리와 제도상의 가부장적 요소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신흥종교들 역시 교단의 세력확장을 위해 기성사회와의 마찰을 피하는 선교를 하다보니 성차별주의가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을 개혁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 워크샵을 가졌다.

7. 동성애(Lesbian)의 워크샵

레즈비언을 가진 어머니와 레즈비언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들의 삶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나 교회에서 폐쇄되어온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생각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여목사(미국)의 발언은 이성애를 주장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종교지도자의 열띤 발언과 비교해 볼 때 문화에 따른 인간의 사고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동성애를 반성서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성서를 바른 시각으로 재해석하라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미국인 여

목사의 설득력 있는 발언은 이성애를 주장하는 아프리카의 종교지도자를 무색하게 했다.

레즈비언인 여목회자의 고백은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었다. 자기는 본래부터 동성애의 성향(Orientation)을 타고난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 것을 결심했으나 동성애의 강한 성격을 알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회자의 소명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고 레즈비언으로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녀의 용감하고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결단과 목회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책임에 감동했다. 동성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Issue)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안수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새롭게 제기된 이슈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제도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제 동성애자들은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호소하는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또다른 차원에서 그들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 동성애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와 교계에서 곧 그것은 도전이 될 것으로 인식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8. 생태계와 여성(Eco-feminist theology)

이 워크샵에서는 생태계와 여성에 대한 로즈메리 루터(Rosemary Ruether)의 강연이 있었다. 그는 신학적 이원론의 오류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과 자연을 대상화, 객관화하고 있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남성문화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가부장 문화의 산물인 성차별과 지배와 폭력을 본질화 함으로써 그녀는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성이야말로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인간을 살리고 보존하는 여성이야말로 '생태계'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이제 우리는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뤄야 하는 당위론을 말하고 있었다.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여성을 남성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과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라고 논증했다. 생명의 역동성을 파괴한 남성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결론적으로 위계질서와 이원론을 극복할 때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의 강의의 주제는 여성원리 회복을 남성중심의 파괴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변형화(Transformation)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연을 인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

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수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촌의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환경/생태계 문제에 세계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충분했다. 그러면서 류터는 우리가 전수한 문화적 유산은 남성우월주의적이며 성차별주의적이라고 다시 청중들을 재인식시켰다. 우선 여성의 해방은 또다른 의미에서 21세기의 새질서를 제시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 류터의 말은 새로운 것은 없었으나 재인식과 확인시키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약은 민족적, 계급적, 인종적, 성적 및 어떤 경계를 뚫고 나간다. 예수는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류터는 회개와 갱신으로 하나님의 계약공동체에 자연을 영입하라는 제시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다. 우리는 오늘날 피조물(생태계)들이 겪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자연과 동일시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픔을 느낀다.

북경대회이후 종교여성행동강령

향후 기독교 여성운동과 여성신학운동은 폭넓은 여성운동의 확산 속에서 종교의 가부장성과 종교의 사유화로 묶여 있는 교회여성들을 여성들의 연대의 현장으로 연결시켜 나가므로서 교회여성의 성차별을 인식하기 위한 "여성의 눈으로 교회를 보자", 의식화 운동과 종교여성간의 연대, 일반여성운동과의 연대의 틀을 묶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9월 29일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에서 가진 북경대회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은 "북조선과 남한여성의 만남의 광장"의 결과로 여성의 입장에서 70세이상의 고령자의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 제안되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 될 것이다.

북경회의 참관기

맥뭉춘 세계의 개(?) 목걸이

손 봉 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유엔이 주관하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여성대회인데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약간은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봄 중국정부가 NGO포럼을 북경에서 53km나 떨어진 화이로에서 개최한다는 발표가 있는 이후 전세계적으로 적잖은 파문이 일어났다. 막상 가서 본 화이로는 진작에 보이콧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북경에서 매일 한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데다가 모든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참석자들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행사를 개최하는 워크샵 장소가 이곳저곳 떨어져있어 하루 이삼십리정도를 걷는건 보통일 지경이었다. 더구나 하루걸러 비가내려 고달픈 NGO들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화장실이 가는데 무서워 물을 마시는것도 자제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막상 정부회의가 열리는 국제회의장은 외형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NGO포럼 참석자들이 운동화에 허름한 차림새로 동분서주하는 몰골인데 비하면 깔끔한 정장에 하이힐까지 받쳐신고 품위를 뽐내는 정부대표단들은 분명 보기도 차이가 나 보였다. 일각에서는 역시 남자들이 선택한 여성들이라 모양새부터 다르다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NGO와 GO대표를 차별한 것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NGO들은 모두 없는 살림을 쪼개어 자비로 참석했지만 정부대표단들이야 정부가 주는 여비로 참석했으니 우선 마음의 여유가 다를 것이었다.

이번 여성대회에서 나는 세 단체를 대표하게 되었다. 첫째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자격으로, 그리고 한국NGO위원회의 실행위원으로 NGO를 대표하는 일이다. 두번째는 아태여성정치네트워크의 이사로 유엔이 인정한 지역NGO를 대표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세번째가 한국NGO를 대표하여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세계의 회의장 통과패스를 각각 받았다. NGO포럼에서는 NGO패스 하나면 족했지만 정부회의에 참관할때는 정부패스나 아니면 NGO패스가 필요했다. 문제는 중요한 회의에는 세계의 패스를 목에 걸고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민대회장에서 개최된 환영리생선이라든가 첫날 개최된 본회의 등은 소위 높은 사람들만 참석이 허용되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4명씩만 공식적으로 참석하도록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여성대회조직위에서 유엔이 인정한 NGO들에게 패스를 줄때 지역단체들에게는 각5명씩 숫자를 제한하여 발급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려면 몇시간씩 줄을 서서 175명까지만 입장하도록 했다. 그러니 나같은 경우는 4명안에 끼는 서열높은 정부대표도 아니요 그렇다고 줄을 서서 175명에 길만큼 열성도 없고보니 세계의 개(?) 목거리를 걸고도 복도나 왔다갔다하는 오버저버로 전략할 수 밖에 없었다. 날짜가 지날수록 중요인사들의 연설이 끝나면서 회의장 참석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좁은 회의장을 마련하여 인원을 제한한 것은 중국정부의 돈벌기 작전이 아닌가 모를 일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관광이 아니면 쇼핑일테니 말이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여성후보자교육을 위한 모의선거운동전략회의를 비디오로 상영하였다. 그리고 아태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는 여성정치의식증진을 위한 일반여성교육용 비디오를 상영하였고, 아울러 여성문제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는 행동강령을 손질하는 워킹그룹에 몇번 참석하였다. 한국은 77그룹에 속해있어 모든 의사수렴은 그룹차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G77의 이사국도 아니고보니 당장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아보이지 않았다. 별 불일없는 작은 나라들도 손을 들고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 가리지 않고 나라이름을 걸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G77에서 독립하는게 옳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당장은 목소리가 약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주일간에 걸친 짧지않은 세계여성대회 참석은 이래저래 큰 역할도 없이 목걸이 수만 채운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기분도 지을 수 없었다.